

365

INVENTION

아세톤

온갖 색상의 화려함으로 여성들의 손톱을 장식하는 매니큐어, 이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은 유대인이었던 카임 바이츠만 교수가 발명했다.

이 아세톤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츠만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한 발명품이기도 하다. 아세톤은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이는 액체로 쓰인다. 특히 소총의 탄환이나 폭약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다. 1914년 전쟁중 바이츠만은 인조고무를 만들기 위해 세균을 찾다가 설탕을 아세톤으로 변화시키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아세톤의 제조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온 유럽으로 확산되자 폭약제조용 아세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영국은 미국 등지에 대규모 공장을 세워 아세톤을 생산했다. 그 중 바이츠만과 벨푸어와의 만남이 독립에 작용했다.

아스피린

오늘날 지구에서 아스피린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열제의 대명사가 된 이 약품은 순간의 착상으로 탄생한 발명품에 불과하다. 발명기는 화학자였던 칼 도이스베르고였다. 칼은 1883년 가을, 바이엘 에르베펠드라는 물감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서 안티피린이라는 해열제가 발명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실수로 탄생한 약품, 해열제 안티피린' 호기심이 동한 그는 기사에서 말하는 안티피린 원료와 자신의 공장 뜰에 쌓인 폐기물 성분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은 폐기물이 귀한 원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노력의 결과로 안티피린보다 성능이 뛰어난 해열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완성된 약품은 페나세틴이나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팔려 나갔다.

아이스크림

요즘 더운 여름이건 추운 겨울이건 가릴 것 없이 아이스크림은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것은 언제 발명했을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두 겹으로 된 은제 술잔 안에 눈을 담아 과즙을 식혀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에 피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50년 경 음식물을 차게 하기 위해 얼음을 이용하고 있었다. 네로가 통치할 때 눈에 섞은 과육이 저절로 얼게 된다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이스크림은 1300년 초, 토스카나의 베르날드 본탈렌티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마르코 폴로가 1895년에 중국에서 베네치아로 그 제조법을 가져왔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유럽에 망명하고 있을 때 아이스크림의 맛을 익혔다고.